

베이징 코로나19 확산... '제2의 우한' 되나

신파디 시장발 확진 106명으로 대응 수준 3급서 2급으로 상향 봉쇄 가능성 거론...주민 이동 제한



16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스포츠 센터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에서 공안과 보안요원의 통제 속에 시민들이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서 지난 11일 코로나19가 재발한 이후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자 검사와 봉쇄조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며 고강도 통제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시는 지난 16일 각급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시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이처럼 예방통제 조치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쥘은 지난 15일 관영 CC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앞으로 3일간이 이번 유행의 추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7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왕광파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위중증의학과 주임은 이번 집단감염의 근원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는 발병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려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진 환자들이 신파디 시장과 관련됐으며 넓게 퍼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15일까지 5일간 확인된 확진자 106명이 모두 신파디 시장과 연관 있다고 전날 밝혔다.

왕 주임은 베이징이 잠재적 환자를 찾기 위해 대규모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우한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5월 30일 이후 신파디 시장을 방문한 20만명을 확인해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자택에 머무르도록 조치했다.

왕 주임은 "일일 신규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파하면 베이징시는 더 강한 방역



조치를 도입하고 도시를 봉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광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과장인 베이징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베이징 주민들이 격격하는 것 같은 우한식 봉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한이 봉쇄된 주된 이유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대 이동 기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한이 봉쇄된 것은 춘제 이틀 전인 1월 23일이었다.

코로나19 대응 수준 상향 이후 베이징과 다른 지역을 오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항공편이 1천편 넘게 취소됐고 시외 버스 운행도 대거 중단됐다. /연합뉴스

인도-중국군 국경 충돌로 수십명 사망

45년만에 사망자 발생

유엔·미국, 양측에 자제 촉구

인도와 중국의 군사충돌로 45년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양측의 사망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인도 육군은 전날 라다크지역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애초 3명으로 발표됐다가 이후 늘어났다. 추가된 사망자들은 부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도 당국 한 관계자는 ANI통신에 "중국 측에서도 이번 충돌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충돌로 사망자가 나오기는 1975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히말라야산맥 서부 국경분쟁지에서 수주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이번 충돌로 크게 고조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충돌에서 총격은 없었고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쇠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웠다고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5일 해 질 무렵 순찰을 하던 인도 병력이 좁은 산등성이에서 중국군을 마주쳐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인도군 지휘관이

때밀려 강 협곡으로 떨어졌고 이후 지원군이 투입돼 양측 병력 600명이 맨손으로 싸우거나 돌과 쇠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km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양국은 카슈미르와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의 약 9만km²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는 카슈미르 약사이친의 3만 8000km²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인 아누라그 스리바스타바는 16일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폭력 충돌은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현재 국경 상태를 바꾸려 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인도군이 15일 두 차례 국경을 넘어 도발했다는 입장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인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양측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중국과 인도 모두에 "최대한 자제를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도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기대했다. /연합뉴스

에펠탑 3개월만에 재개방... "마스크 써야 입장"

1~2층만... 승강기는 미운영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인 에펠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에펠탑 운영사 측은 "오는 25일부터 에펠탑을 1~2층만 개방하기로 했다"며 "다만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

세 이상 방문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두시간마다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꼭대기 층으로 연결된 승강기도 당장 운행하지 않는다. 운영사 측은 오는 8월까지 에펠탑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펠탑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폐쇄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파리를 찾는 관광객도 예년보다 80% 감소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완화되자 25일(현지시간) 에펠탑 부근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서 가장 비싼 홍콩 부동산, 압류 속출

압류건수 2018년의 5배로 늘어 경기침체 원인... "내년 더 늘 듯"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압류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업체 센트리21의 조사 결과 현재 홍콩 내에서 압류당한 부동산 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6월 56건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의 19건보다 5배로 늘어난 압류 건수이다.

이마저도 정부 지원과 법인 폐쇄 등으로 인해 매우 축소된 수치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홍콩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이를 통해 1만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홍콩 법원이 석달 넘게 폐쇄되면서 압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약해 주택 가격의 80~90%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집값이 10~20% 떨어지면 담보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홍콩의 부동산 압류 건수가 무려 3600여 건에 달했다.

현재 홍콩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압류 사태가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콩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작년 동기 대비 8.9%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실업률은 5.9%로 2005년 상반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5%보다 더 높은 실업률이다.

센트리21의 임원인 헨리 초이는 "실업률이 더 오르고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압류 건수는 내년에 1000건에서 2000건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텍사메타손 코로나19 중증환자 사망률 크게 낮춰"

영국 치료제로 즉시 채택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현지시간) 영국이 코로나19 중증환자에 기본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 33% 이상의 생명을 구한 데 대해 "과학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약은 염증 치료 등에 사용하는 텍사메타손으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리커버리'로 명명한 임상시험을 주도한

결과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및 영국 보건장관은 "텍사메타손은 저렴하며, 집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 사용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환자에게 즉시 처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에 참여한 피터 호비 조사관은 "사망률을 상당히 줄여 대단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